

강진군, 따뜻한 사랑으로 '복지사각지대 ZERO'

소외계층 18가구에 '사랑의 희망꾸러미' 전달

매월 수시 대상자 방문·복지서비스 적극 연계

강진군은 지난달 28일 복지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사각지대의 소외계층 18가구에 '사랑의 희망꾸러미'를 전달했다.

2019년 신규특수수시책으로 시작된 '찾아가는 디딤돌 희망꾸러미' 사업

은 질병 또는 부상으로 생활고를 겪는 세대를 비롯해 기초생활수급 신청·탈락자 및 자격 중지자, 그 밖에 생활이 어려워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 빈곤계층을 위해 추진된다.

매월 수시로 대상자들을 방문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공적·민적 복지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연계하는 현장 중심의 복지정책이다.

강진군은 7월까지 99가구를 방문·상담해 건강과 주거 환경 등 생활실태와 육구를 파악하고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연계 지원하는 한편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복지이장을 통하여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꾸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칠량면 최00(남 87세) 어르신은 "주민복지실장님과 칠량면장님이 외

롭고 어렵게 사는 노인을 잊지 않고, 방문해주셔서 감사하다"며 "세심한 관심과 배려에 정말 감사하다"고 말했다.

김영기 주민복지실장은 "다함께 잘사는 행복한 강진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꾸준히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추진할 계획이다"며 "외롭게 사는 이웃들에게 희망과 사랑을 전하는 데 앞장서 행복한 강진군 만들기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진=김영일 기자

전라남도 전문건설협회, 나주 장애인 단체 격려금 지원

(사)한국장애인부모회 나주시지부 방문, 애로사항 청취

전라남도 전문건설협회(회장 오중순)는 지난달 27일, (사)한국장애인부모회 나주시지부(지부장 박동민)를 방문해 격려금을 전달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한국장애인부모회 나주시지회는 지적·자폐성·발달 장애 등을 가진 자녀들의 부모로 구성돼있는 단체다.

이날 지부 관계자는 "발달 장애 자녀들의 정신능력이 항구적으로 지체돼있어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어렵다 보니, 부모의 도움을 받아 평생을 살아가야하기에 부모들의 심적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다"며, "자녀를 말

길 곳이 없으니 부모 대부분이 경제활동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라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애로사항을 전했다.

이에 오중순 회장은 "장애를 안고 살아가는 자녀를 둔 부모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니 같은 부모로서 공감되어 마음이 아프다"며, "오늘 나눔을 계기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애정을 갖고, 이분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격려금을 전달받은 박동민 회장은



"발달장애인을 둔 부모들의 고통을 격려해 주기 위해 방문해 주신 전라남도 전문건설협회에 무한한 감사를 드린다"며, "발달 장애인 자녀들이 더 큰 용기를 갖고 사회구성원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양육과 보호에 힘써가겠다"고 화답했다.

발달장애우·모, 수영장 입장 거부·동성보호자요구는 '차별'

발달장애인이 수영장을 이용할 때 동성보호자만 동반해야 한다는 체육관 측의 요구는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A군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B체육센터장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애인에 대해 동성보호자 없이도 수영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라고 권고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어머니 C씨는 발달장애인 아들(29)과 B체육센터에서 운영하는 자유수영 프로그램을 이용하려고 방문했다. 하지만 이들은 B체육센터 대표담당자로부터 '동성보호자가 아니면 입장 불가능'이라는 이유로 입장을 거부당했다. 이에 C씨는 '장애인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그동안 C씨의 아들은 동성보호자와 함께 3년 동안 B체육센터 수영장을 정상 이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센터 측은 "피해자가 이용을 원한 낮 12시 시간대는 어린 학생의 참여가 많아 동성보호자 없이 탈의실과 샤워실을 이용할 때 안전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 입장을 제한한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B체육센터가 해당 지역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시설로서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또 "피해자가 수영하는 도중에는 이성보호자인 진정인이 동행할 것이므로 탈의실과 샤워실 이용시간 동안만 피해자를 도와줬으면 됐다"며 "(보호인력을 배치하는 것이) B체육센터에 과도한 부담이 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화순=박순철 기자

화순군 북면, 홀로 사는 이웃에 밑반찬 지원

연말까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후원 '사랑의 밑반찬 나누기' 진행



화순군 북면이 지난달 28일부터 행복을 나누는 '사랑의 밑반찬 나누기

사업'을 시작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후원으로 오는 12월 말까지 총 16회 진행할 예정이다.

사랑의 밑반찬 나누기는 장애나 질병 등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방문해 반찬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민·관이 손잡고 꼼꼼하게 지원 대상자를 발굴해 반찬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이웃 10명

을 지원한다.

북면 맞춤형 복지팀은 매주 1회 대상 가정을 방문해 김치를 포함한 4종류의 반찬을 직접 배달한다. 주기적인 방문과 반찬 제공으로 대상자의 기본적인 식생활 여건 조성고 고독사 예방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반찬을 전달하며 대상자의 안부를 살피고 복지욕구를 파악해 복지서비스로 연계하겠다는 방침이다. 방문할 때는 대상자가 더 편안한 분위기에서 어려움을 말할 수 있도록 복지 이장과 동행할 예정이다.

조주호 북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공동위원장은 "사랑의 밑반찬 나누기가 어려운 이웃이 고르게 영양을 섭취하고 건강 식생활을 하는데 보탬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을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화순=박순철 기자

야호센터는
인문-예술-사회참여로
청소년-지역주민과 함께합니다.

야호는 청소년의 외침이다.

야호의 꿈

- 청소년이 지금 행복한 삶
- 청소년이 사유하는 삶
- 청소년이 예술을 향유하는 삶
- 청소년이 마을을 사랑하는 삶
- 마을 주민들이 세계시민이 되는 삶
- 마을 주민들이 삶을 위한 공부를 하는 삶
-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더불어 살아가는 삶

062-960-6980
광산구 사암로 340번안길 5

광산구